

집회 / 교회
안내 /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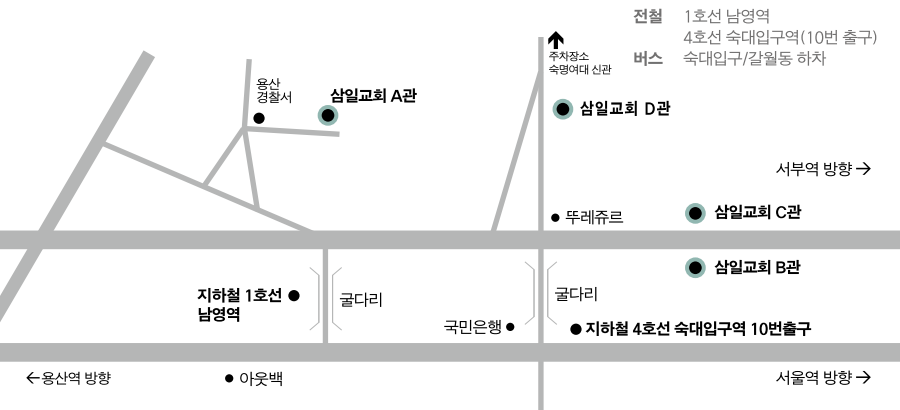
집회안내

집회	시간	장소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삼일교회 B관 2층	영아세앗부(1-2세)	1부: 오전 10:30	402호
	2부: 오전 10:30	(영아통역 3층)	영아새싹부(3세)	2부: 오후 1:00	404호
	3부: 오전 12:00	(중국어통역 3층)	유아밀음부(4세)	1부: 오전 10:20	401호
	4부: 오후 1:30		유아소망부(5세)	2부: 오후 1:00	703호
	5부: 오후 3:00	(5부 일본어통역 3층)	유치부(6,7세)	오전 10:10	7층 중예배실
젊은이예배	6부: 오후 4:30	삼일교회B관 2층	유년부예배	오전 10:10	405호
	7부: 오후 6:00	(영아통역 3층)	초등부예배	오전 10:10	1층 소예배실
주일 저녁예배	오후 7:45		소년부예배	오전 10:10	C관 5층
수요일예배	1부: 오후 5: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4층
	2부: 오후 7:30		고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3층
금요일아기기도회	오후 10:00	삼일교회 B관 2층	외국인예배	오후 1:00	504호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새가족부	주일 낮 예배직후	C관 1층 새가족부실
	2부: 오전 6:30		리더교육	토 오후 5:00	삼일교회 B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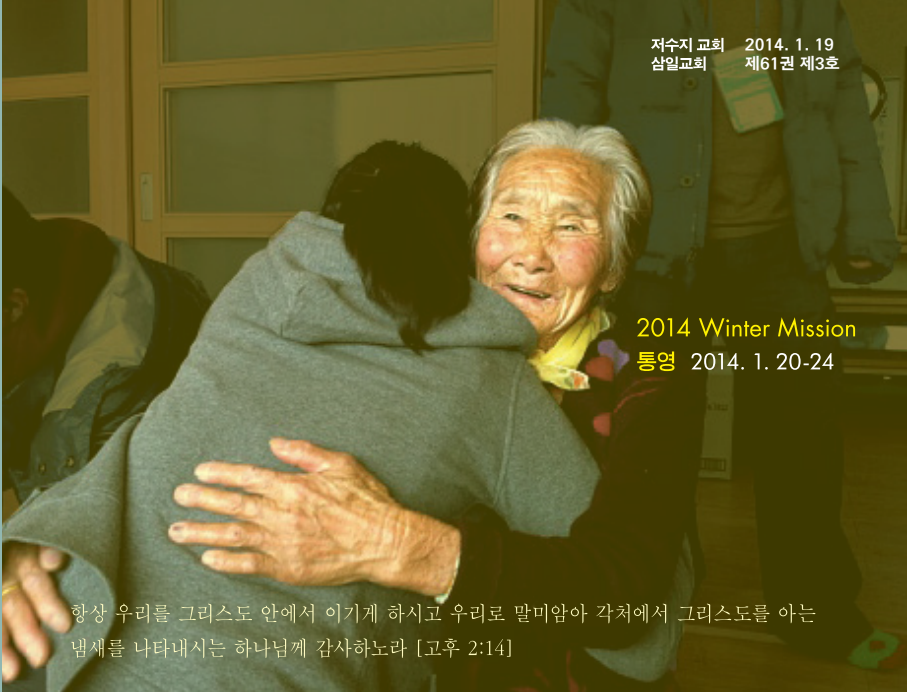
1월 예배 봉사위원	1월 대표 기도 순서			봉헌위원		
	1부	2부	3부	1부	박동선 집사	
				2부	김희석 집사	
	1주	주병옥 장로	이광영 장로	박신찬 장로	3부	유우열 집사
	2주	이영규 집사	남재희 집사	박동선 집사	4부	장석면 집사
	3주	이대규 장로	나원주 장로	장구경 장로	5부	이수관 집사
	4주	이윤석 집사	최승돈 집사	이수관 집사	저녁예배	
					박정석 집사	

교회안내

B관	베다니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Tel 02.713.2660	Fax 02.3273.5297
A관	아브라함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18-19	Tel 02.711.4328	
C관	새물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Tel 02.703.4001	Fax 02.711.3126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삼일기도원_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Tel 031.592.8385	



섬기는 분들



주일 1~5부 예배

설교 송태근 목사 (사회 1부: 우상현목사 2부: 양제현목사,
3부: 김정안목사 4부: 안영민목사 5부: 하근태목사)
본문 사도행전 15:22-29
제목 사도행전강해(26) “성도의 명예와 원리”
헌신기도 1부 이대규장로 2부 나원주장로 3부 장구경장로

주일 6~7부
젊은이예배

설교 최성근목사
본문 야고보서 1:22-25
제목 “누가 복을 얻는가?”

주일 저녁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사회:이익주목사)
본문 요한복음 10:16
제목 “캠퍼스선교를 열망해야할 4가지 이유”

수요예배

1부설교 김예환목사
본문 요한복음 11:25-26
제목 “사랑받는 자의 죽음”

금요철야예배

새벽예배

1부 설교 월:우윤환목사 화:박두진목사 수:이홍우목사
목:고석창목사 금:이은희전도사

2부 설교 월:강병희목사 화:고석창목사 수:이윤준목사
목:임형진목사 금:조시환강도사

Samil Church

저수지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태근

금주의 칼럼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20:21~22)

1.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군중들과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밀려오는 지난 3년 간의 회상과 좌절감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검거의 열풍이 불어 닥쳐 제자들은 공포에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3마디를 하셨습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셋째,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 속에는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름다운 피조물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속아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유부로부터 오는 공권원이 끊어지고, 인간은 평강을 잃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요:13,14) 인생의 해갈을 위해서 온갖 오단을 동원하여 달려가지만, 거기에 평화와 만족이 없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정확하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요:7:37~39)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요:19:28) 이는 우리의 영원한 해갈을 위해서 대신 목마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이 흘러넘칩니다.

2.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릴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이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숨을 내쉬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창2:7) 첫 아담은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실패하였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죽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외마디를 남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번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재창조의 역사이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불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성도는 보냄받은 자로서 일상이라는 선교지에서 평강을 전해야 한다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 카톨릭 신학자 한스 쾰은 교회의 사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도직의 계승이 아니라, 사도들의 임무가 계승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불려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특권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특권만이 아니라 보냄 받은 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성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마치면 그 예배가 일상 속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으로 들어가 성도로서 사는 것도 중요한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성도의 전 생애는 구원의 특권과 함께 일상으로 보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평강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강권적인 주둔권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혼, 목포, 일본 그리고 일상의 선교지로 보냄 받은 것입니다.

1.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사람 아담은 죄로 실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평강도 깨졌습니다. 요한복음은 평강이 깨어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요4:13,14)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요7:37~39)

2. 지난 생애 속에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개인적인 욕망이 성취된 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며, 거기에 어떤 종류의 만족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고,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요20:22)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두 장면은 어디입니까?(창2:7; 요20:22)

4.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진과 달라진 가치관, 철학, 행동 양식을 서로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5. 교회는 먼저 죄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무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처럼 성도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 받은 자들입니다. 신학자 한스 쾰은 이를 무엇이라고 명명했습니까?

6. 성도는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일상으로 그 예배가 확대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경험했던 일상 예배의 은혜를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일상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발견한 성도로서의 의무와 비전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보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